“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영향력 키울 것”

이기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신임회장

글 | 박방주 _ 중앙일보 과학전문기자 bpark@joongang.ac.kr

신임 이기준 회장(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과총)은 주변에서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개혁 성향의 그가 회장직을 맡았으니 과총을 대대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시각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는 전임 회장이 쌓아놓은 업적을 잘 이어받고, 새롭게 할 것을 찾아 더 얹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를 부정하고 무조건 바꾼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가 과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문학과도 소통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과총의 정체성과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 공대학장, 전국공대학장협의회 초대 회장,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서울대 총장 등을 거쳐 지난 2월 28일 임기 3년의 과총 회장직에 취임한 이 회장을 만나본다.

Q. 회장 취임 소감은?

올 해는 건국 60주년을 맞는 해로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과총 회장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시대적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새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잘되고 있는 일은 더욱 잘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전달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선진 과학기술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420여개 회원단체와 호흡을 함께하며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고 과학기술인이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Q. 과총의 발전을 위해 가장 비중 있게 추진할 사업은 무엇입니까?

과총은 1966년 창립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불모지였던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 6~7위권으로 끌어 올리는데 중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우리 과총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고 과총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5가지 사항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첫째로, 과총의 정체성과 외부 역량을 넓히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인이 과총을 사랑하고 과총과 함께 호흡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최근 떠오르고 있는 과학적 혹은 기술사회적 주요 이슈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표출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학술단체의 역할과 업적을 글로벌 수준에 맞추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업적들을 창출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학술단체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과학기술에 대한 미래의 잠재적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해 청장년과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도유망한 신진 과학기술인 및 여성 과학기술인을 발굴하고 이들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산업체와 학계, 그리고 연구계와의 협동을 확대하고, 특히 기업의 과총 발전에 대한 기여의 폭을 확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출연연구소와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 유도는 물론, 인문사회분야와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사회 각분야의 NGO들과도 대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총의 국제 과학기술협력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 과학기술인협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 선진국들과의 협력을 전개함으로써 기술선진국과는 교류와 경쟁을, 기술후진국과는 지원과 협력의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Q. 학회가 과총의 핵심인데 이들의 현실과 발전을 위해 무엇을 도와 줄 수 있을까요?

현재 과총에 가입되어 있는 과학기술계 학회는 총 320개로서, 이는 과총의 420여개 전체 회원단체 중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회는 해당 학문 분야 및 학회 규모 등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므로 각 학회의 특성을 고려한 수월성 중심의 육성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동안 과총은 학회 육성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중장기 육성지원방향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원 · 육성하기 위해 '학회 육성지원 기본계획' 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회의 학술활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학문 및 학회 특성에 따라 지원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세계적 학술대회에 걸맞은 국제적 학문 교류활동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규모는 작지만 육성이 필요한 학회는 그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영문 과학기술 논문집이 더 많이 탄생하도록 후원하여 훌륭한 연구업적이 세계무대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학회들이 지식정보 사회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집단으로서 그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의 과학화를 위하여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Q. 한국의 학회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지요?

우리 나라의 수많은 학회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해 오면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기초 · 원천기술 확보라든지 혁신적인 인력양성의 뿌리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학회들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설립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학회의 규모가 영세하게 되고 재정 능력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물리학회의 예에서 보듯이 어느 한 학문분야를 대표하는 협회 또는 모학회를 중심으로 세부분야 학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학술지를 발간하고, 학술대회나 각종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학회의 재정적 건전성 유지는 물론이고 학문을 더 깊고 넓게 발전시키는 기본적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과거에는 분화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전문영역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그와는 반대로 융합과 통섭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전문영역의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과총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하 단체쯤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총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분명히 특정부처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하단체쯤으로 오해하는 시각이 있다면 이는 아마도 그 동안 학회학술활동지원사업 등 과학기술부 위탁사업 비중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외에도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국회, 경제계, 인문사회계와의 활발한 소통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학회는 물론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계와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Q.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참여를 강조했는데 어떻게 확대할 계획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기술에 대한 미래의 잠재적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나가고 전도유망한 여성과학기술인을 발굴하여 이들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2월 말 새로 임원진을 구성할 때 과총 역사상 가장 많은 여성을 임원으로 모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여성 임원진과 관련 여성단체 등이 협력하여 과학기술계에 더 많은 우수한 여성인력이 진출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크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Q. 산학연의 협동을 확대할 방안이 있습니까?

선진경쟁국에 비하여 과학기술 가용자원이 부족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학연 협동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과학기술계의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공동연구의 지원이나 조세지원, 정보지원 및 기술이전 등 다양한 시책을 부분적으로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과총차원에서도 앞으로 그 동안 학회를 중심으로 한 각종 학술활동의 폭을 넓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와의 연계를 강화해 시너지 효과도 얻고 실질적인 업적을 창출하도록 하는 주도적 역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 산업발전의 뒷받침이 되는 기술혁신을 담당할 1만5천여 개 기업연구소와의 협력강화는 중요한 과제로서 기술개발 애로요인의 발굴과 건의, 각종 협력지원제도의 확충, 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촉진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Q.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는 한편 인류가 당면한 에너지, 식량, 자원, 환경, 재난재해의 예측과 방지, 지속가능한 사회 인프라 구축 등 수많은 글로벌 이슈의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과총에서는 국가정책을 지원하고 또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선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포 과학기술인들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국가마다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재외교포 과학기술자협회와 협력하여 수준 높은 학술대회의 개최를 돕고, 과학기술정보 및 인력교류 등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교포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교류행사에도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올 8월에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될 한 · 미 과학기술 콘퍼런스(UKC-2008),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한 · 유럽 과학기술콘퍼런스(EUKC-2008), 10월에는 일본 도쿄의 한 · 일 과학기술콘퍼런스(JKC-2008)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국내외 젊은 과학도를 대상으로 한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YGF)이 7월 15일부터 대덕연구단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Q. 이공학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을 듯한데….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인이 국가 발전의 주역이 되는 과학기술 중심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인은 산업현장은 물론 연구, 교육 분야에서 또 정치, 행정, 언론,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과학화를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과총에서는 60여 과학기술단체와 공동으로 "과학기술계 인사의 국회의원직 진출을 지원해 줄 것"을 각 당 대표 및 공천심사위원장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과총이 우리 과학기술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 · 정치 참

여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과학자들도 우리 사회를 더욱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선배 과학기술인들이 불과 40여년만에 불모지였던 우리 과학기술수준을 세계 6~7위권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룩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굳건히 하는 보람찬 일을 위하여 우리 이공학도들이 젊음을 불사를 각오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Q.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까?

소년시절에는 만화 보기를 즐겼고,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는 가끔씩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에 나오는 글들을 들춰보기도 하고, 삶의 철학이 담긴 '세계명언(보성출판사)'들을 음미하곤 합니다. 도손의 '파이널 라운드'도 감동적이었으나 이 책들을 기호가 다르고 취향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해야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Q. 취미와 가족관계는?

젊었던 시절에는 '운동권'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운동경기를 좋아 했고, 차나 와인 한잔 하며 벗들과의 담소를 즐기곤 합니다. 직장생활을 해온 아내와의 사이에 성장한 두 아들이 있고 귀여운 손자가 하나 있어 즐거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Q. 회장님의 취임과 함께 과총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